


### 동아에스티, 송도 도심 숲 가꾸기 캠페인 실시

동아에스티가 사업장이 위치한 인천 송도에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도심 녹지 보전 활동에 나섰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일 인천 누리공원에서 송도시설공단, 연수구청과 함께 친환경 도시 숲 가꾸기 '모동숲'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동아에스티 송도캠퍼스 류창걸 공장장(앞줄 왼쪽에서 6번째),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강병진 사업본부장(앞줄 왼쪽에서 7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아에스티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통계조사 기여 공로 인정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계 경제총조사 참여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2026년도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 유공 포상 전수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병수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연구소장(왼쪽 2번째)이 '2026년도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 유공 포상 전수식'에서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왼쪽 5번째)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고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포용금융 실천 동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김인 회장이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일 밝혔다. 사람 살리는 금융 캠페인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주관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금융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권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 포용금융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 여경협, 우수 여성기업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마케팅 전문기업과 손잡고 우수 여성기업의 온라인 판로 개척에 나선다. 여경협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본회에서 퍼포먼스바이티비더블유에이(퍼포먼스바이TBWA)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박창숙 여경협회장(오른쪽)이 김형태 퍼포먼스바이TBWA 대표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경협



### 소진공, 대전경찰청과 소상공인 안전 강화 성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전경찰청과 협력해 추진한 '스마트 안심 태그 보급 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사업 담당자들이 대전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3일 소진공에 따르면 지역상권실 윤은진 과장, 정수정 대리가 대전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각각 수상했다. (왼쪽부터)소진공 지역상권실 정수정 대리, 윤은진 과장. /소진공

# 퇴직연금 558조 시대… 금감원, 장기투자 문화 확산

**퇴직연금 오래오래 캠페인 출범식**
**연말 납입·상반기 운용 점검 정례화**

퇴직연금 적립금이 558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이 장기·분산투자 문화 확산에 나섰다.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특정 자산에 쏠리거나 단기 매매에 치우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서다. 연금계좌를 정기적으로 살펴보고 자신의 은퇴 계획에 맞춰 관리하도록 교육과 실천을 연계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및 퇴직연금사업자와 공동으로 '퇴직연금 오래오래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찬진 금감원장과 가입자 대표, 노동계, 학계, 금융협회 및 퇴직연금사업자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퇴직연금 오래오래 캠페인. /금융감독원

올해 6월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5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말 382조4000억원에서 2024년 말 431조7000억원, 지난해 말 501조4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성장세를 이어갔다.

가입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고 운용 결과에 따라 받는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는 수요도 급증했다. 올해 1~7월 DC형 전환 가입자는 34만156명으로 전년 동기 15만5947명보다 118.1% 늘었다.

반면 운용 방식은 양극화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말 DC계좌 기준으로 적립금 전액을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넣은 가입자 비중은 46.9%였다. 적립금의 절반 이상을 위험자산에 투자한 가입자도 33.9%에 달했다. 올해 2분기 말 퇴직연금 내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규모는 99조8000억원으로, 2023년 말 9조원의 약 11배로 늘었다. 실적배당형 상품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50.4%였다.

운용에 관심이 있어도 방법을 모르는 가입자는 적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지난해 직장인 퇴직연금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7.1%는 적립금 운용에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번 캠페인은 '배우고(Learn)·열어보고(Open)·가꾸고(Nurture)·이어가는(Grow)'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각 단어의 앞 글자를 딴 'L.O.N.G.'를 바탕으로 단기 수익보다 장기·분산투자 원칙에 따른 운용을 유도한다.

매년 11~12월에는 '연금 채움 주간'을 운영해 가입자가 적립금과 연간 납입액,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금융회사 앱과 문자, 영업점 등을 통해 추가 납입 가능 금액을 알리고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도 지원한다.

매년 5~6월에는 '연금 가꿈 주간'을 마련한다. 수익률과 운용 현황 등을 담은 퇴직연금 투자백서를 발간하고, 디폴트옵션과 보유 상품을 점검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지원을 통한 '찾아가는 내 연금 교실'과 사업장 대상 운용 교육도 진행한다.

가입자가 활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가이드북'도 금융협회·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발간했다. 총 254쪽 분량으로 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을 아우르며, 노후 준비상태 점검부터 제도 선택, 적립금 운용, 연금 수령까지 생애주기별 정보를 담았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LG전자, 문화유산 디지털 아트 공개

K-헤리티지 컬렉션 21점 제공
모란도·백자 달항아리 등 구현

LG전자가 스마트TV를 통해 조선 왕실의 문화유산을 디지털 아트로 선보이며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LG전자는 스마트TV 아트 콘텐츠 서비스 'LG 갤러리 플러스(LG Gallery+)'에서 조선시대 문화유산을 디지털 아트로 재해석한 'K-헤리티지 컬렉션: 시즌1 조선왕실 시리즈' 21점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LG 갤러리 플러스는 LG전자의 독자 스마트TV 플랫폼 웹OS(webOS)를 기반으로 한 아트 콘텐츠 서비스다. TV를 디지털 캔버스처럼 활용해 이용자가 취향에 맞는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실내 인테리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컬렉션에는 경복궁 근정전의 천장과 단청, 기둥 등 내부 공간을 표현한 '정전 안으로(Into the Throne Hall)'와 경회루의 야경을 담은 '달과 물 사이(Between Moon and Water)' 등 미디어아트 영상이 포함됐다.

일월오봉도와 모란도, 군안도 등 조선왕실 회화도 디지털 화면으로 재구성했다. 백자 달항아리와 분청사기, 청화백자, 국새 등 다양한 문화유산도 디지털 아트로 구현해 집에서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컬렉션은 디지털트윈 기업 위프코(WIPCO)가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제작했으며, 헤리티지랩(Heritage LAB)이 콘텐츠 기획과 창작을 담당했다. 아트테크 기업 엘팩토리(ELFACTORY)는 플랫폼 연계와 유통을 맡았다. LG전자는 이들 기업과 협업해 한국 문화유산을 활용한 디지털 아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영국 내셔널갤러리 런던과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주요 미술관과도 협력하고 있다. 아트 플랫폼 사치아트(Saatchi Art)와의 협업을 통해 현대미술 작품을 제공하는 한편, 게임 일러스트와 자연경관 사진 등 콘텐츠 범위도 넓히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LG 갤러리 플러스의 디지털 아트로 재탄생한 '백자 청화 매죽문 항아리'. / LG전자

# 교촌, 특수학급 학생들과 나눔 체험

사회성 향상 위한 봉사활동

교촌에프앤비가 특수학급·통합학급 학생들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체험형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임직원 봉사단 '바르고 봉사단'이 지난달 27일 서울 은평구 서울구산초등학교 학생 30명과 함께 사회성 향상 체험학습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특수학급 학생 9명과 통합학급 학생 21명이 참여했다. 교촌 임직원과 '청년의 꿈' 장학생 등 봉사단원들은 학생들과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고 인근 근린공원에서 숲 산책을 했다. 이후 교촌치킨 역촌1호점에서 치킨 소스 바르기 체험도 진행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

# SLL, 두바이와 K-콘텐츠 중동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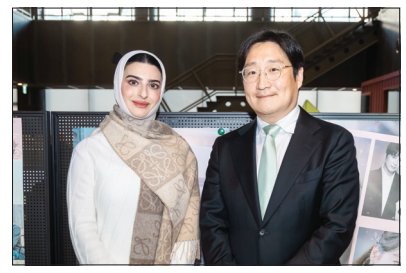
콘텐츠 공동제작 등 협력 논의

SLL이 두바이 미디어위원회와 만나 한국과 두바이 간 콘텐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SLL은 지난달 28일 두바이 미디어위원회(DMC) 대표단을 만나 글로벌 콘텐츠 공동제작과 지식재산권(IP) 활용 등 양측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네할 바드리 DMC 사무총장 등 두바이 미디어 산업 관계자와 박준서 SLL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SLL은 주요 글로벌 콘텐츠 성공 사례와 해외 공동제작 경험을 공유하고 포맷 판매 및 리메이크 사례를 소개했다. 드라마 '닥터 차정숙'의 튀르키예 리메이크와 '미스티'의 이집트 리메이크 등이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주요 사례로 언급됐다.

양측은 한국과 두바이 제작사 간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제작, SLL 콘텐츠 IP의 아랍에미리트(UAE) 현지 리메이크, 촬영 장소 지원 등을 논의했다. DMC는 SLL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신원선 기자


네할 바드리 DMC 사무총장과 박준서 SLL 대표이사(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했다. /SLL

# 광동제약, ESG 경영 공로 산업장관 표창

ESG 경영 체계 강화

광동제약은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생산성·지속가능경영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제21회 지속가능경영 유공 종합 ESG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포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매년 ESG 경영 실천과 국정과제 이행 성과 창출에 기여한 기업·기관을 선정한다.

광동제약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전 영역에 걸쳐 지속가능한 경영 가치를 창출하고 체계적인 관리 인프라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세경 기자 seilee@

## 부음

▲공윤길씨 별세, 이용호(청와대 춘추관 행정관)씨 빙부상 = 3일 오전 7시,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2층 8호실, 발인 5일 오전 6시.

▲문철상 씨(전 신협중앙회장) 별세, 김경희 씨 남편상, 문순환·윤선 씨 부친상, 윤연지 씨 시부상 = 2일 군산 은파장례문화원 2층 특실, 발인 4일 오전 9시 30분, 장지 군산승화원